

##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보육교사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

Narratives of Innocent Child Care Teachers' Experiences of  
Being Suspected of Abusing Children

윤주연<sup>1</sup> 장경은<sup>2</sup> 박지현<sup>3</sup>

Juyeon Yun<sup>1</sup> Kyung Eun Jahng<sup>2</sup> Jihyun Park<sup>3</sup>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innocent child care teachers who had been suspected of abusing children at child care centers.

\*본 논문은 2017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Methods:** Ten innocent child care teachers who had been suspected of child abuse participated in the study.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collect data. Data were analyzed using Creswell's analytical framework.

#### 1 제1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생

**Result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perceptions of CCTV were positive, while parents' mistrust in CCTV formed the teachers' negative perception of it. Second, the teachers were also withdrawn from their relationships with parents, children, and other employees in child care centers. Finally, they suffered from psychological burnout after they were suspected of child abuse.

#### 2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e-mail : kjahng@khu.ac.kr)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protect teachers' human rights and to prevent relationship dissolution and burnout in traumatic situations.

#### 3 공동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생

**key words** child abuse, teachers' human rights, child care teacher, qualitative research

## I. 서론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에서 발간한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 연도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5,657건에 불과하던 아동학대사례가 2017년에는 22,367건으로 약 4배 정도 늘어났다(표 1). 2016년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하여 아동학대 사례율이 59.6%으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 후에도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아동 발견율과 아동학대 사례 건수의 증가는 아동 학대처벌법 시행(2014.09.29.) 이후 신고의무의 강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인식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표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중복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개소)

구분	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	5,657	6,058	6,403	6,769	10,027	11,715
	증가율	-0.5	7.1	5.7	6.1	47.5	16.8	59.6	19.6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수	44	44	46	50	51	56	59	60
	증가 기관수	-	-	2	4	1	5	4	1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에서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 학대 처벌 강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수인(2017)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아동학대 신고자들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강동욱(2014)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리절차에서의 한계점과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운숙(2017)은 국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은 보육교직원용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를, 교육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에서는 유치원 교사용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국가적 수준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김소희, 2018).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의 보고에 따르면, 2017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보았을 때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17,989건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0.4%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에서 843건(3.8%), 유치원에서 269건(1.2%)의 학대가 보고되었다. 특히, 영유아 보호와 교육 및 권리 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기관인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내 근무자(원장, 영양사, 청소부, 조리사 등)도 매년 아동학대 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과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 강화되었으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과 실습시간의 증가를 통한 교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안전한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015년에 통과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의 교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신고 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학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 등을 수집하며 추가적인

학대 발생 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피해아동에게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집단시설(보육·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개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시 동행하여 협조하고 있다. 2016년 상담원과 공무원이 동행한 사례는 718건이며, 경찰과 공무원이 동행한 사례는 114건, 상담원·경찰·공무원이 모두 함께 동행한 사례는 2,045건으로 집계되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게 된 어린이집은 신고 접수를 인지하게 되고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 전문기관 상담사가 어린이집의 시설을 점검하며 해당 교사와 부모 및 영유아의 진술을 받는다. 진술을 확보한 후, 가장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6개월분의 CCTV 영상을 복사하여 기관에서 판독하게 된다. 또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개별적인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해당 교사 외에도 관련 교사들의 참고 조사가 경찰서에서 이루어진다. 아동학대 신고 후 아동의 심리적 불안을 막기 위하여 학대의심 교사와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조치요령으로도 명시되어 있어 교사의 업무 중단이나 해당 아동의 퇴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의심을 받은 순간부터 CCTV 확인절차를 거치고 판결이 나오는 동안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 의심자로 간주된다. CCTV 영상 판독 이후,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아동학대 관련 혐의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다.

그리고 장기간의 기다림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당사자인 보육교사가 이직하거나 혹은 보육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아이가 등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받았던 한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충격 끝에 교사직을 그만두었으며(전남주, 2018), 2016년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학대’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다(탁지훈, 2017). 이처럼 판결 기간 동안 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 의심자로 구분된다. 그리고 장기간 혐의 처분 관련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교사나 동료 교사 및 기관은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경험하며, 무혐의 판결 후에도 교사 혹은 기관이 겪는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교사가 경험하는 과중한 업무와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유성연, 2015; 이경숙, 박진아, 최명희, 2015), 아동학대 오인 신고나 의심은 오히려 교사의 스트레스 증가를 야기하여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이후 유아교사의 인권보호를 국가가 책임져 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하였다. 보육교사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어 왔으나, 교사 인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관련 연구에서는 학대 행위 자체나 아동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진 반면(김광혁, 2016; 류정희, 2017), 보육교사의 인권에 대한 내용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외에서도 교사 인권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부족하며,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교사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거나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되고 있다(McCowan, 2013). 국내연구에서는 주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아동 안전 및 부모의 접근권과 대립되는 가치로서 교사의 인권이 논의되어 왔으며(조재현, 2015), 보육교사의 인권에서는 교사

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 및 CCTV에 의한 교사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문제와 관련하여 교사의 인권 문제가 다루어진 바 있다(차선자, 2016). 이에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그들의 경험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현장 조사와 탐색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와 관련한 보육교사의 경험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아동의 행복을 위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 및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아동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이경민, 박주연, 2015)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들의 당사자였던 보육교사들의 경험을 알아보려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교사들을 위한 보호 장치나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는 보육교사들의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교사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의심자로 분류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보육교사의 경험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하여 경기도의 민간 어린이집 3곳, 경기도의 국공립 어린이집 2곳, 대전의 직장 어린이집 1곳, 대전 민간 어린이집 1곳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의 해당 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였으며, 다음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어린이집 근무 당시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실제로 신고를 당했던 경험이 있고, 의심 사례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었거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에 해당하는 교사에 한하여 SNS를 통한 연구 참여자 모집 경로와 해당 경험이 있는 교사 면대면 연구 참여 요청 경로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대한 안내를 받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의 다른 곳에는 쓰이지 않으며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그에 따른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지 않는 시점까지 포화표집(saturated sampling)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가명)	나이	학력	교사 경력	신고대상 자	학대 의심 경험	학대 의심 해당 아동 연령	근무현황
1	박소연	27세	대졸	5년	부모	有	2세	퇴사
2	김지은	35세	고졸	9년	부모	有	1세	근무중
3	정한나	24세	전문대졸	3년	부모	有	4세	근무중
4	박미경	36세	전문대졸	7년	부모	有	3세	퇴사
5	김월순	40세	고졸	15년	부모	有	2세	근무중
6	박수미	29세	대졸	5년	부모	有	2세	이직
7	최효정	26세	대졸	5년	부모	有	2세	이직
8	허은화	27세	대졸	6년	부모	有	3세	퇴사
9	김지나	27세	대졸	6년	부모	有	1세	퇴사
10	이주연	26세	대졸	5년	부모	有	2세	이직

##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7년 4월 24일부터 2017년 5월 25일에 걸쳐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일인에 대하여 개별 면담을 2회씩 실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총 34회기로 진행되었고, 면담 한 회기에 평균 2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표 3. 개별 면담 일정

회차	날짜	소요시간	연구 참여자
1	2017년 4월 24일	60분	박소연
2	2017년 4월 30일	70분	김지은
3	2017년 5월 1일	55분	정한나
4	2017년 5월 5일	60분	허은화
5	2017년 5월 5일	70분	최효정
6	2017년 5월 10일	55분	박미경
7	2017년 5월 12일	60분	김월순
8	2017년 5월 13일	70분	박수미
9	2017년 5월 15일	50분	이주연
10	2017년 5월 17일	60분	김지나
11	2017년 5월 17일	105분	김지은
12	2017년 5월 18일	80분	김월순
13	2017년 5월 18일	70분	박소연

표 3. 계속

회차	날짜	소요시간	연구 참여자
14	2017년 5월 19일	60분	허은화
15	2017년 5월 21일	100분	최효정
16	2017년 5월 22일	90분	박미경
17	2017년 5월 22일	80분	박수미
18	2017년 5월 23일	105분	이주연
19	2017년 5월 23일	90분	정한나
20	2017년 5월 25일	95분	김지나
추가면담 21	2017년 5월 27일	45분	박소연
추가면담 22	2017년 5월 27일	40분	허은화
추가면담 23	2017년 6월 2일	30분	박수미
추가면담 24	2017년 6월 3일	40분	김지나
추가면담 25	2017년 6월 5일	40분	최효정
추가면담 26	2017년 6월 6일	30분	박수미
추가면담 27	2017년 6월 6일	30분	허은화
추가면담 28	2017년 6월 10일	50분	이주연
추가면담 29	2017년 6월 10일	40분	김지은
추가면담 30	2017년 6월 10일	30분	정한나
추가면담 31	2017년 6월 11일	20분	김월순
추가면담 32	2017년 6월 11일	20분	허은화
추가면담 33	2017년 6월 11일	20분	박미경
추가면담 34	2017년 6월 17일	30분	박미경

본격적으로 면담에 들어가기 전에 참여자와 보육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구 참여자와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에 주력하였다. 면담이 진행될수록 더욱 심도 있는 내용의 참여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최대한 자유롭게 이끌어내기 위하여 면담에 사용할 개방형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여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준비한 면담 질문들은 포괄적인 개방형 질문 위주로 구성되었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진술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추후면접(follow-up interview)에 사용될 면담 질문은 이전 면담 내용을 근거로 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면담 질문들은 아동학대 관련 연구 및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로부터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다. 연구자가 작성한 현장일지에는 연구 참여자의 표정, 눈짓, 손짓, 행동 등을 포함한 비언어적 행동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해석이 어려웠던 부분과 의문점에 관해서는 연구 참여자와의 전

화 통화를 통해서 추가 정보를 제공받았다. 연구에 사용된 질문 문항들의 일부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면담에 사용한 질문내용

- 당시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의심을 받게 되었나?
- 당시 선생님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 의심 경험 후 보육교사에 대한 후속처리는 어떻게 하였는가?
- 모든 과정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나?
- 모든 과정 후 연구 참여자의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보육교사와 부모가 관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보육교사와 어린이집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보육교사와 해당 영유아 보육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연구 참여자의 말을 정확하게 문서로 옮기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연구자는 녹음하기 전에 연구자의 소속과 성명을 알리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면담 진술들은 모두 익명 처리되어 비밀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면담 내용을 면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전사하였다. 정확한 전사를 위하여 녹음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 3. 자료 분석

Creswell(2014)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고 연구자가 전사본을 수차례 반복하여 읽는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의 이야기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전사된 내용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코딩한 뒤, 유사한 의미를 내포한 코드들끼리 묶어서 범주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범주들을 상위 범주로 묶는 범주화 작업으로부터 본 연구의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료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구성하였다. 분석된 내용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와 질적 연구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며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 결과,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경험하는 CCTV에 대한 양가감정,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경험하는 관계적 위축,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경험하는 심리적 소진을 포함한 3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자가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동료검토(peer debriefing)와 연구 참여자들이 해석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 중에서 보육교사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편견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경험을 지닌 연구자들이 자료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연구자의 반성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과 기술에서 다른 연구자 간에 나타나는 불일치

표 5.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범주, 상위범주 및 주제

하위범주	상위범주	주제
CCTV에 대한 의식 없이 행동할 수 있음		
수업개선에 도움을 주는 CCTV	CCTV에 대한	아동학대
나를 대변해주는 CCTV	보육교사들의 긍정적 인식	의심자로서
자기보호 또는 자기방어로서의 CCTV		경험하는
교사보다 CCTV를 더욱 신뢰하는 부모		CCTV에 대한
교사를 감시하는 CCTV	CCTV에 대한	양가감정
문제해결을 위해 CCTV에 의존하는 부모	보육교사들의 부정적 인식	
학대가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		
부모를 피하고 거리를 둠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	
유아와의 소극적인 상호작용		아동학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위축됨	영유아의 물리적 및 심리적	의심자로서
아이에 대한 애정 철회	거리감 경험	경험하는
아이에 대한 미운 감정		관계적 위축
동료나 선임, 원장으로부터 받는 부정적 시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과의	
원장의 면박과 지속적인 감시	부정적 관계	
학대 의심 후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 건강 악화		
분노, 무기력 등 부정적 감정	학대 의심 후 지속되는	아동학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휴식 필요	스트레스	의심자로서
교사로서의 자존감 상실		경험하는
직업에 대한 회의	직업적 상실감 및 퇴사 결정	심리적 소진
퇴사 결정		

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이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타협된 타당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가 제시하는 의미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경험하는 CCTV에 대한 양가감정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 단어는 CCTV였다. 교사들이 경험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 CCTV가 교사들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기 보호의 장치 역할을 하는 반면, 일부 부모들의 불신감은 교사와의 대화보다 CCTV 확인이 더 우선시되는 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면담으로부터 보육교사들이 CCTV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

식을 동시에 보이는 양가감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CCTV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긍정적 인식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 따르면, CCTV로 인하여 보육교사는 출근하는 것이 꺼려질 정도의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수정, 이일량, 이대균, 2013). 이선이(2016)의 연구에서도 CCTV가 안심보육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보육교사들의 행동제약과 사생활침해 및 스트레스 가중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보육교사들이 CCTV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CCTV의 긍정적인 측면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더 이상 CCTV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고, CCTV로 인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오히려 수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신경 쓰이고 이로 인해 가식적인 모습으로 행동을 했는데 지금은 처음의 마음보다는 조금 나아졌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일하는 것 같아요.  
(2017. 4. 24. 박소연 보육교사)

한 1-2년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근데 점점 지내올수록 사실상 CCTV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2017. 5. 13. 박수미 보육교사)

CCTV가 있으면 긴장되는 모습, ‘수업을 조금 더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모습, 그리고 조금 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재미있게 큰 액션을 취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인드가 생기고...교실이라는 의미로 수업활동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런 좀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해이해지는 모습이나 누군가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불편한 점도 있지만 반대로 지켜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결과가 아이들한테는 재미있고 조금 더 많은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2017. 5. 10. 박미경 보육교사)

무엇보다도 CCTV는 아동학대 의심자로 물리는 상황에서 교사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CCTV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 잘 드러났다.

아이들이 아직은 언어표현이 다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말만 믿으라고 하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럴 때 왜 다쳤는지 선생님 이야기만 듣고 믿는 것 보다는 어머님들이 직접 더 보면서 “아 이렇게 다쳤구나.” 라며 교사와 아이들을 대변해서 해줄 수 있는 장점이 많이 도움 돼요.

(2017. 5. 13. 박수미 보육교사)

또 반대로,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훈육을 하게 될 때도 CCTV가 저를 조금 더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만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애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는 공간이 보육실이잖아요.

(2017. 5. 10. 박미경 보육교사)

제가 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CCTV가 설치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설치할 것 같아요.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조절이 안되면 한순간에 흔들리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학대나 행동을 막기 위해, 그리고 CCTV 장학이나 안전을 위해서도 설치는 할 것 같아요.

(2017. 5. 15. 이주연 보육교사)

CCTV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교사들을 보호해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들은 엄마들의 알 권리와 교사들은 교사들의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방어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17. 5. 17. 김지나 보육교사)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육교사들은 CCTV에 대한 거부감에서 CCTV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로 이어지는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더불어 교사들은 CCTV를 수업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로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CCTV에 대한 보육교사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는 CCTV 존재 자체가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 2) CCTV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부정적 인식

CCTV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교사들도 CCTV를 둘러싼 부모들의 반응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CCTV 설치 이전에는) 부모님께서 교사의 말에 신뢰를 가지시고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부모님께서) 화면만 보려고 하시며 아니면 땡이라는 식이지만 교사는 퇴사를 고려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늘 생겨나면 일에 대한 자괴감이 생깁니다.

(2017. 4. 30. 김지은 보육교사)

CCTV의 설치 목적이 아동의 안전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한 CCTV 설치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CCTV가 교사의 감시자가 되고 잠재된 아동학대범을 가려내는 등의 시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17. 5. 5. 최효정 보육교사)

보육교사가 학대를 했다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으니까 (CCTV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학부모님들이 시시때때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2017. 5. 5. 허은화 보육교사)

악용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CCTV)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017. 5. 17. 김지나 보육교사)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보육교사가 겪는 부정적인 경험의 중심에는 CCTV가 존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CCTV를 교사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의심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CCTV부터 확인하는 부모들을 경험하면서 교사들이 느낀 부정적 감정과도 연결이 된다. 즉,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육교사들은 잠재적 아동학대 범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의심 상황에서 부모들이 보인 반응으로 인해 경험되어(experienced)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CCTV 설치의 본래 목적인 아동학대 예방이 아니라 교사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CCTV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전락하는 것은 CCTV를 둘러싼 부모들의 반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부모들이 교사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CCTV를 통한 문제 해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때 CCTV를 둘러싼 교사와 부모 간의 불편한 인식 차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 2.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경험하는 관계적 위축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교사들은 부모,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과의 관계가 부정적인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건을 겪고 난 이후, 교사에 대한 부모의 오해가 해소된 상황에서도 교사들은 부모, 영유아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로부터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근무환경에서 관계적 위축을 경험하였다.

### 1)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

교사와 부모 간의 신뢰 있는 관계는 질 높은 보육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 참여자인 교사들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는 과정에서 부모들과의 대화보다는 부모들의 CCTV 확인 요청이 선행했다는 사실에서 학대자로 의심받는 상황을 강렬하게 경험하였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모들은 교사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기보다는 CCTV를 통해서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하거나, 전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장면만 주목하기도 하였다. 또한 CCTV 영상을 시청하는 과정에서도 부모가 상황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듣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나타나듯이, 문제 상황 발생과 관련하여 부모와 교사 간 충분한 대화가 배제된 CCTV 열람은 일순간에 교사들을 학대 행위자로 예단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 의심이 이루어져 해당 영유아가 퇴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해를 풀고 다시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는 아이들이 많았다. 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고 관계 회복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보였다.

의심이 많은 엄마였어요. 교사는 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밥을) 뜨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이의 말만 듣고 부모가 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걸로 의심해서 아이가 뛰다가 넘어졌는데 책상에 눈 주위를 부딪쳐서 많이 다쳤는데 혼자 넘어져서 이렇게 큰 상처가 날 수 없다며 요청을 하여서 동의하에 CCTV를 보았는데 역시 혼자 퐁퐁 뛰다가 책상에 부딪혔다는 게 명백히 밝혀졌죠.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여드렸어요. 오해는 풀리게 되었지만 부모와 거리감을 두게 되고, 사실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2017. 5. 10. 박미경 보육교사)

속상했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얘기를 데리고 나가고 학대를 했다고만 하고 열람을 요청하셨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충분히 대화로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1년 동안 애를 보살폈다는 것에 대한 허무함. 아 내가 이렇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나 하는 교사로서의 자괴감도 들고 그 동안 교사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정말 방치했나하는 죄책감도 들고, 그렇지 않은 걸 알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많이 당황했고 많이 속상했고 많이 힘들었죠.  
(2017. 5. 23. 이주연 보육교사)

많이 걸끄러웠어요. 등하원시 만나게 되면 선임과 제가 서로 등하원 맞이를 미루려고 했고, 아이가, 아침에 당직 반에 일찍 등원하는 편이었는데 교실로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웬만하면 안 마주치고 싶었어요. 일 년 내내요.  
(2017. 5. 17. 김지나 보육교사)

해당 부모님과과는 표면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었고 부모님도 내게 더 이상 뭐라고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 부모를 꺼리게 됐죠. 면담 시기가 되었을 때 원장님이나 다른 교사도 그 부모와 면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17. 5. 21. 최효정 보육교사)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하며 더 신경 쓰고 더 웃었지만 모든 부모가 나쁘게 보였고, 새 학기이고 적응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당연하게 요구하고 당연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2017. 5. 19. 허은화 보육교사)

이와 같이 아동학대 의심 사건 이후 교사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의심 사건 이후 해당 부모 뿐 아니라 모든 부모가 나쁘게 보였다는 교사의 진술은 교사가 경험하는 관계적 위축과 고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모와 교사 간의 협력 관계는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연계 교육과 교사의 유아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다. 그러나 원장이나 다른 교사들도 해당 부모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을 권하는 상황에서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2) 영유아와의 물리적 및 심리적 거리감 경험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와 교사 간의 관계의 질은 유아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구선라, 1999; 유민숙, 2009; 정미조, 2009). 유아와 교사 간의 친밀함의 수준의 높을수록 유아들의 친사회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아와 교사 간의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에게서 공격성과 부정적 행동이 더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선라, 1999; 정미조, 2009). 영유아는 돌봄 이상으로 교사로부터 사랑과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는 교실 환경에서 탐색과 놀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을 받은 교사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처럼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고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이를 대할 때 스킨십을 자중하고 동작을 작게 했어요. 걸음걸이도 신경 쓰게 되었고요.

(2017. 4. 30. 김지은 보육교사)

아이 앞에서 손을 위로 드는 행동도 CCTV 화면상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조심스러워 아이들 가까이 가지 않게 됐어요.

(2017. 4. 24. 박소연 보육교사)

마음고생 후 아이들을 대하는 제 행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적극적에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했어요.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졌고, 의욕도 잃었고요.

(2017. 5. 13. 박수미 보육교사)

보육교사도 사람이에요. 잊고 싶지만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아이에게 손길을 조금 적게 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사과를 했지만 서로 간에 마음의 불편함이 남아있었죠.

(2017. 5. 10. 박미경 보육교사)

그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고 혼자만의 세계가 있었기에 교사가 제일 많이 곁에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 (그 아이에게) 되도록 가까이 가는 것이 꺼려졌어요. 또 오해 받을까봐.

(2017. 5. 5. 최효정 보육교사)

아이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스킨십 회피와 의도적인 신체적 분리였다. 심지어 아이 앞에서 너무 조심하다보니 교사의 동작과 몸짓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사건과 관련된 영유아 뿐 아니라 모든 영유아에 대하여 교사는 물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기방어를 취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 100% 사랑을 주기가 어렵다고 해야 하나, 좀 멍청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죠. 자꾸 그 아이 뒤에 부모님 얼굴이 보였어요.

(2017. 5. 24. 김지나 보육교사)

표면적으로는 웃으며 아이를 맞이하고 놀이했지만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운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등원에서부터 거의 하원 전까지 울었는데 울음소리 듣는 것도 힘들었죠. 퇴근하고 나서도 그 아이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2017. 5. 5. 허은화 보육교사)

또한, 교사들은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물리적 거리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교사들은 애정을 기반으로 한 영유아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보다는 소극적이며 형식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에 반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질 높은 상호작용이나 교육 환경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영유아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불만이 있는 부모들과는 또 갈등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과의 부정적 관계

아동학대 의심 사건 이후 교사들은 심리적 압박감을 경험하였고 원장 및 다른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인 보육교사들은 오해로 비롯한 의심 사건에 연루된 경우들이었지만, 오해가 풀리고 나서도 어린이집에서 더욱 강력한 규칙을 세우거나 장학이 이루어지면서 교사는 더욱 심리적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한 일이 생긴 이후로 모든 교실에서는 보육 외에 다른 일에는 금지가 있고 낮잠 시간에도 일하려면 모든 애들을 재워야하고 만약에 안 자려고 하면 너무 막 재우지는 않고, 일하지 못한 채 교사가 옆에서 조용한 놀이를 하거나 보조나 누리 교사가 있으면 유희실에서 놀이를 하러 나가는 등의 규칙이 생겼어요. 저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하는 말 같이 들었어요. 또, CCTV에 대해 신경 쓰라는 지침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2017. 5. 24. 김지나 보육교사)

다른 교사들에게 아동학대를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나에게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그 시기에는 나만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또, 초임 때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역시 초임이야. 초임이라서 그래”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속상함도 컸고 나로 인해서 메이트가 휴가를 갈 때마다 눈치를 봐야했어요. 미안했죠.

(2017. 5. 21. 최효정 보육교사)

부모는 뭐라고 안했는데 오히려 원장이 면박주고 교사의 자질까지 판단하여 말했어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부모님이 확인하시고 아무 일 없던 것으로 넘어갔지만, 교사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어요.

(2017. 5. 1. 정한나 보육교사)

심지어 원감님께서 계속 반에 불박이처럼 있었고 ... 너무 속상했고 억울했고 화가 나고 힘들었어요.

(2017. 5. 19. 허은화 보육교사)

아동학대 의심 사건 이후,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원장으로부터 위로와 배려를 받기 보다는 교사들은 어린이집 규율이 추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사들은 사건 이후 일종의 죄책감과 극도의 예민성을 경험하였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원장의 면박”과 “원감의 감시” 등을 경험하면서, 사건 이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과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내에서 교사는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고립감은 부정적인 사회지지를 형성하게 되어 교사 효능감을 떨어트리게 되기도 했다.

### 3.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경험하는 심리적 소진

이렇듯 아동학대 의심 자체만으로도 부모, 교사, 영유아, 어린이집 간의 관계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연구 참여자 교사 중에서 당시를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거나 퇴사로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모두 아동 학대 의심이 교사로서의 자질 부족이라는 자신 및 타인의 평가로 이어진 점을 지적하였다.

#### 1) 학대 의심 후 지속되는 스트레스

보육교사들은 학대 가해자로 의심을 받는 사건 이후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그들은 자괴감, 무기력, 화, 회의감 등의 다양한 감정이 동반된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여러 감정들은 서로 뒤얽혀서 복잡하게 표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무기력해지다가도 화가 나기도 하기도 하는 등의 상반된 정서적 감정이 뒤엉켜 나타났다.

혹시나 CCTV를 통한 학대의심으로 인해 저의 다른 부분까지 안 좋게 볼까봐 걱정됐어요.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많이 불쾌하고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꼈죠. 열람 후 원장과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될지 걱정되고, 내가 CCTV까지 확인해야 하는 정도로 교사 자질이 없나 자괴감이 들었어요. 상황을 다 설명하였으나 전혀 믿지 않고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셔서 신뢰가 전혀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힘이 빠졌어요.

(2017. 4. 24. 박소연 보육교사)

뭔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화가 나기도 하고 교사로 산다는 것이 너무 벅찼어요.

(2017. 5. 5. 최효정 보육교사)

교사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고 정신적으로 힘들다보니 다른 아이들을 보기 전에 벌써 소진한 느낌이었어요.

(2017. 5. 19. 허은화 보육교사)

학대 의심 사건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소진은 결국 직업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 2) 직업적 상실감 및 퇴사 결정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경험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직업적 상실감과 퇴사와 이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대가해자로 의심받는 사건에서 직업적 존재감 위축 그리고 교사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단계를 경험하였다. 사건 이후 교사들은 교사로 사는 것이 벅차다고 느끼며, 교사로서의 자괴감, 회의감, 소진 등을 경험하였다.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지고 모든 게 다 예민해지고 결국에는 퇴사를 결정했어요.

(2017. 5. 19. 허은화 보육교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많이 노력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버겁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밖에 안 생겼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화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 부정적이고 교육도 잘 안되게 되고 일상생활을 온전히 잘 보내기 힘들었고 이리다 정말 (아동학대범죄자로) 텔레비전에 나오겠다 싶어서 퇴사했어요.

(2017. 6. 3. 김지나 보육교사)

학대 가해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모든 교사들이 이직이나 퇴사라는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어 내야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중재요인이 있다면 교사가 이직이나 퇴사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교사들이 감당해야 했던 직업적 상실감과 퇴사 고민 과정에서 그들의 심리적 회복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에 대하여 그들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직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어떠한 지원도 없이 혼자서 내적 갈등을 이겨내야 했음을 시사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았던 사건을 경험한 보육교사들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경험하는 CCTV에 대한 양가감정,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경험하는 관계적 위축,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경험하는 심리적 소진을 포함한 3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보육교사들의 경험은 CCTV에 대한 그들의 양가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다. 먼저,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초기에는 CCTV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법안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강은진, 이정림, 조혜주, 2016). 임수정 등(2013)의 연구에서도, CCTV가 설치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교사는 어린이집에 출근하는 것을 꺼려하고 휴게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몸이 좋지 않아도 쉴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또한, CCTV 설치로 인하여 안심보육의 목적은 달성하였으

나 보육교사들은 행동제약, 사생활침해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선이, 2016).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면담 시작 전에는 교사가 CCTV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연구 참여자인 교사들은 CCTV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CCTV 영상 내용을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영유아의 부족한 진술을 보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CCTV를 자기 보호의 장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보육활동을 개선하는데 CCTV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황신해, 김민진, 2017). 이러한 연구결과는 CCTV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CCTV 설치 의무화 초기에 지배적이었던 부정적 인식에서 점차 CCTV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도 공존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들은 CCTV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경험하였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을 받는 순간에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은 교사와 부모 간 대화보다 CCTV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결정적 순간에 교사들은 허무함 및 자괴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였다. CCTV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의심 상황에서 부모들이 보이는 반응 양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즉, 학대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건을 둘러싼 교사들의 경험은 타인 의존적일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개인의 경험은 그 사건이 어떻게 개념화되는지를 결정하는 담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Scott, 1992), 보육 현장에서의 아동 학대와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CCTV에 대한 부모들의 의존성을 높이고 이는 결국 교사들의 부정적 경험으로 이어진다.

교사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은 결국 교사의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문동규, 2018). 또한 부모들이 느끼는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은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박미현, 2017). 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수준은 교사로서의 신념과 의욕을 약화시키며, 교사의 능력 및 자질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염지숙, 2003). 따라서, 부모와 교사들이 CCTV를 잠재적인 학대자를 가려내는 감시자가 아닌 영유아 보육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보호 장치로 이해하도록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이은희와 김수향(2016)이 지적하였듯이, 상황적 범죄예방접근법에 따른 감시 기능이 추가 되는 CCTV에 의존하는 것보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CCTV가 교사들의 결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교사들은 CCTV가 교사에 대한 감시의 목적으로 이해될 때 교사들을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사들은 CCTV를 교사에 대한 부모의 불신감의 상징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CCTV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CCTV에 대한 타인의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차선자(2016)가 지적하였듯이, CCTV 열람으로 인하여 교사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인 평가와 정보가 해당 교사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CCTV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서 문제 상황 식별과 증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나, CCTV를 둘러싼 부모와 교사 간의 인식 차이는 관계에서의 대립각만 고조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보육 상황과 관련한 부당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항변하기 어렵다(안은선, 2013.6.27). 따라서 보육교사가 이러한 학대 의심의 경험으로 인하여 심리적, 신체적 어

려움을 겪는 경우를 대비하여 교사를 위한 보호와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들이 CCTV를 확인하기 전에 교사의 입장에서 상황 설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마련과 교사와 부모 간의 대화 또는 이들 간의 의사소통을 증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겠다.

또한, TV나 인터넷에서 CCTV에 기록된 학대 영상이 지속적으로 방송되면서 전체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이 더욱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정현심, 김태연,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송하는 미디어도 자극적인 학대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거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 문제가 전체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을 받은 후,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부모,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의 관계에서 위축되는 경험을 하였다. 사건에 대한 오해가 풀린 이후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 영유아와 신체적 및 심리적 거리를 두고 사무적이며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해당 아이 뿐 아니라 다른 영유아들과의 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중 한 명만이 원장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부모 및 아이들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었다. 교사, 학부모, 영유아 간의 관계는 보육의 질적 수준과 관련이 있다(김정화, 이재연, 2013; 박찬옥, 조현정,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부모, 영유아와 맺는 긍정적인 관계는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연계와 교육의 일관성, 그리고 영유아의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행동 유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신수아, 정가운, 2018; 지성애, 정재은, 2011). 특히, 영유아와 교사 간의 긍정적인 애착 관계는 영유아의 또래 관계(권연희, 2012)와 어린이집 적응(신수아, 정가운, 2018; Birch & Ladd, 1997)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교사와 부모 간의 협력적 및 동반자적 관계 부족은 교사의 질적 보육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홍은경, 백영숙, 김성숙, 2007). 결국,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교사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문제로 이어져서 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의 심리정서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이러한 사례에서 보호받지 못한 교사의 인권 문제는 아동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관계의 변화를 최소화하거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교사들은 부모 및 영유아와의 관계 문제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오해가 모두 풀린 상황에서도 동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원장이나 원감에 의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 느낌을 받고, 이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지지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제고에 기여(정순희, 최영미, 이희영, 2013)하는 반면, 직장 내 지지의 부재는 교사에게 고립감과 소진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직의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조성연, 이정희, 2010; 최진영, 김영희, 김대광, 2015). 또한 직장 내 지지의 부재는 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상실을 통하여 정서적 소진을 야기할 수 있다(최진영, 김영희, 김대광, 2015). 학대 의심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였는데, 원장과 동료들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교사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는 가중될 것이다.

셋째, 사건 이후 대부분의 교사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그들이 경험한 심리적 소진은 직업적 존재감 위축, 무력감과 회의감으로 이어져 그들 중 일부는 퇴사를 감행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자괴감, 무기력, 화, 회의감, 힘이 빠짐 등의 표현을 통하여 학대 의심 사건이 야기한 그들의 심리 정서적 변화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었다. 사실 교사들이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상당히 다차원적이어서 스트레스라는 개념 하나로 일축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은 그들이 경험한 스트레스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긍정적인 정서 행위를 하고자 노력하는 감정노동의 수준이 높다(김선주, 주영애, 2014). 의심 사건으로 인하여 관계적 위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정서노동의 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런 경우 직무 소진으로 이어진다(이영미, 민하영, 2011). 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보육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심리적 소진이 높은 교사는 영유아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보육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강병재, 백영숙, 2013). 또한 소진이 높은 교사는 영유아 권리중중보육을 실행할 가능성이 낮아지며(고영운, 신현정, 2018) 이직의도가 높아진다(이주연, 김경화, 신혜경, 2011).

본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심리적 소진과 더불어 일부 교사들은 퇴사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퇴사하였다. 보육교사의 퇴사는 동료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직업에 대한 자부심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직이나 퇴사를 경험하는 교사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는데(정혜영, 이경화, 2014), 이러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 직장 내 지지이다(김창기, 이화정, 2011).

그러나 학대 의심 사건 이후 교사들이 원장 및 동료교사들과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근무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지지의 결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원장과 동료교사들이 주는 긍정적인 원조는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성연, 이정희, 2010).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혜영과 이경화(2014)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의 원장과 동료들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소진 수준을 경감시켜서 교사의 이직 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린 이집 보육교직원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한 교사들의 대부분은 이직이나 퇴사를 하였다.

이직률이 높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는 교사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기 어렵고 이는 영유아의 심리적 안정감에 손상을 미칠 수 있다(이주연 등, 2011). 이러한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영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하며, 이는 질 높은 보육을 받아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학대 가해자 의심 상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육교사들의 심리적 소진은 결국 교사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과 관련이 있다. Furnham과 Argyle(1998)는 직무만족과 삶의 행복과의 관련성을 상호작용가설로 설명하며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직무만족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경애(2010)와 최윤정(2009)은 직무만족도가 삶에 대한 행복감과 상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즉,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보육

교사가 경험하는 심리적 소진은 결국 교사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심리적 소진으로 인한 교사의 인권이 침해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 인권에 대한 논의는 상당수 있었으나, 교사 인권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아동의 성장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의 질 개선은 반드시 요구된다. 그리고 질 높은 보육에서 교사들의 능력과 태도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업무 환경은 선행되어야 할 요건이다(정덕희, 2015). 이처럼 아동 인권 보호(Bennett, 2007)와 더불어 교사의 인권 보호 또한 중요하다. 행복한 교사들은 유아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아가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도록 돕기 때문에(Spodek, Saracho, & Davis, 1987), 유아의 행복을 위해 교사의 행복, 즉 교사의 인권 보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경민, 박주연, 2015).

그러나 보육교사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미흡하다. 차선자(2016)는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관련법을 검토한 논문에서 CCTV에 의한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부모의 주관적인 의심으로 CCTV 영상 정보에 대한 열람요청과 이에 대한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의 위법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러나 위법한 상황일지라도 교사가 부모를 형사 범죄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제시하였다(차선자, 2016). 더욱이, CCTV 열람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인권 문제와 오해로 인한 상황이 해결된 후에도 교사는 이러한 트라우마적 경험에서 벗어나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고 사후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입증된 경우가 아닌 학대 의혹을 받았으나 무혐의가 입증되어 종결된 사건의 해당 교사들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및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학대 의심이 제기되었을 경우, 부모의 CCTV 영상내용 열람 이전에 부모와 교사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상황 설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CCTV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들의 불쾌한 언행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차선자, 2016)이 요구된다. 교사는 교사교육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왔으나,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모들이 주의할 사항에 대한 교육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등이 마련되어 부모에게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교사에게 제공 가능한 상담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교사의 심리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상담 서비스로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교사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화, 온라인 채팅, 이메일 등의 상담과 코칭을 24시간 동안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일 년 중 언제라도 이용가능하며, 내담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필요한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내에도 교사들의 심

리 정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보다 접근성이 높은 상담 및 코칭 서비스가 마련되어 정착화 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교사의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감정코칭 등이 교사교육을 통해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장 및 동료교사가 서로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해주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제공이 보다 체계화되고, 유아의 문제 행동을 다루는 교사의 행동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한다면 의심받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을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위험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며, 보육은 교사를 비롯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과 부모, 그리고 아동이 모두 주체자로서 협력을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트라우마를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을 받거나 실제로 신고를 당한 적은 있으나 결국 학대 의심 사건 자체가 오해로 인한 것으로 당사자 간에 최종 해결된 경우만 포함하였다. 따라서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만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실제 학대 의심사건을 중심으로 관련자들의 경험에 대한 분석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해당 유아들까지도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원을 통하여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동욱 (2014).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6**, 213-240.
- 강병재, 백영숙 (2013). 어린이집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교수 창의성과 교수 효능감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145-168.
- 강은진, 이정림, 조혜주 (2016).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요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2), 357-373.
- 권연희 (2012). 남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 시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간 갈등적 관계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2**(2), 29-48. doi:10.18023/kjcece.2012.32.2.002
- 고영윤, 신현정 (2018).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심리적 소진이 영유아 권리준중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4), 27-38. doi:10.21213/kjceec.2018.18.4.27
- 교육부 (2016. 12).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2&lev=0&statusYN=C&s= moe&m=03&opType=N&boardSeq=65210>에서 2019

년 1월 20일 인출

- 구선라 (1999). 연령과 성별에 따른 교사-유아 관계와 유아행동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혁 (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5.
- 김선주, 주영애 (2014). 보육교사의 표정언어에 관한 사례연구: 교사, 원장, 학부모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107-123. doi:10.7466/JKHMA.2014.32.5.107
- 김소희 (2018). 영유아교육기관 내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척도 개발 연구.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인 (2017).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예비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 지식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화, 이재연 (2013). 어린이집 재원시간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린이집 질적 수준의 중재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357-377.
- 김창기, 이화정 (2011).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보육교사 정신건강에 대한 보육서비스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66**, 147-167.
- 류정희 (2017).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7**(5), 5-23.
- 문동규 (2018).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1), 38-52. doi:10.5762/KAIS.2018.19.11.38
- 박미현 (2017). 보육교사들의 심층적 이야기를 통한 보육교사와 학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설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열린부모교육연구**, **9**(3), 197-220.
- 박찬옥, 조현정 (2006). 부모와 교사가 인식한 직장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44**, 1-18.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8).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9450](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9450)에서 2017년 4월 28일 인출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11). **2017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9870](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9870)에서 2019년 1월 30일 인출
- 신수아, 정가운 (2018). 유아-교사의 관계가 유아의 정서-행동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통제 조절효과 분석. **인간발달연구**, **25**(2), 19-34. doi:10.15284/kjhd.2018.25.2.19
- 안은선 (2013. 6).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vs “불량교사 집단행동.”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021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0216)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 염지숙 (2003).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유민숙 (2009).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과 유아 창의성 간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연 (2015). 유아교사의 직무환경 만족도와 자아개념의 아동학대경향에 대한 관계.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민, 박주연 (2015). 유아교사의 행복, 소진, 이직의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5**(6), 33-48.  
doi:10.18023/kjece.2015.35.6.002
- 이경숙, 박진아, 최명희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227-252.
- 이경애 (2010). 유아교사의 행복과 직무관련변인의 관계분석: 직무만족, 교사효능감, 역할 수행능력, 이직 의도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이 (2016). 어린이집 CCTV 전면 설치와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조사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민하영 (2011). 영유아보육·교육기관 교사의 표면적 정서노동과 직무소진간 관계에서 시 설장, 동료교사, 학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1), 167-185.
- 이은희, 김수향 (2016. 4). **CCTV와 유아교육환경: 인권과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 부산.
- 이주연, 김경화, 신혜경 (201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1**(4), 213-230.
- 임수정, 이일랑, 이대균 (2013). CCTV와 함께 생활하는 유아교사 이야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3), 433-453.
- 전남주 (2018. 5). “일단 CCTV부터 까보자”...어린이집 선생님들 가해자?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83121>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 정덕희 (2015).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이야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2), 77-99.
- 정순희, 최영미, 이희영 (2013). 영아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정서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 193-215.
- 정현심, 김태연 (2015). 어린이집 CCTV에 관한 예비보육교사의 인식: 타전공대학생과의 비교. **아동교육**, **24**(4), 293-309. doi:10.17643/kjce.2015.24.4.16
- 정혜영, 이경화 (2014). 사립유치원 교사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우울 및 소진의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3), 159-181.
- 정미조 (2009). 교사가 인식한 영아 교사 관계와 놀이 시 나타난 영아 교시 및 영아 또래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 이정희 (2010).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원장·동료의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29-42.
- 조재현 (2015). 아동학대의 예방적 과제로서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영상감시카메라 의무적 설치의 헌법적 문제: 미국의 영상감시카메라의 운영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6**(2), 261-300.
- 지성애, 정재은 (2011). 유아의 정서지능과 인지능력, 또래상호작용, 유아-교사관계 간의 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5**(5), 335-358.
- 차선자 (2016).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관련법 검토. **법학논총**, **36**(3), 545-575.
- 최윤정 (2009). 유아교사의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 Seligman의 강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탁지훈 (2017. 8). 아동 학대 ‘무혐의’ 받았는데..억울해도 하소연 못하는 유치원.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25610&section=sc2](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25610&section=sc2)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 황신혜, 김민진 (2017). 보육교사의 CCTV인식 수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전문성 인식. **유아교육연구**, **37**(1), 329-352. doi:10.18023/kjce.2017.37.1.014
- 홍은경, 백영숙, 김성숙 (2007).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1**(4), 55-76.
- Bennett, J. (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democracy and citizenship.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1*(1), 63-79.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doi:10.1016/S0022-4405(96)00029-5
- Creswell, J. W.(201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Furnham, A. & Argyle ,M. (1998). *The psychology of money*. London: Routledge.
- McCowan, T. (2013). *Education as a human right: Principles for a universal entitlement to learning*.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Publishing.
- Scott, J. W. (1992). Experience. In J. Butler, & J. W. Scott (Eds.),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pp. 22-40). New York: Routledge.
- Spodek, B., Saracho, O. N., & Davis, M. D. (1987). *Founda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논문투고: 19.11.19  
수정원고접수: 20.03.11  
최종게재결정: 20.03.24